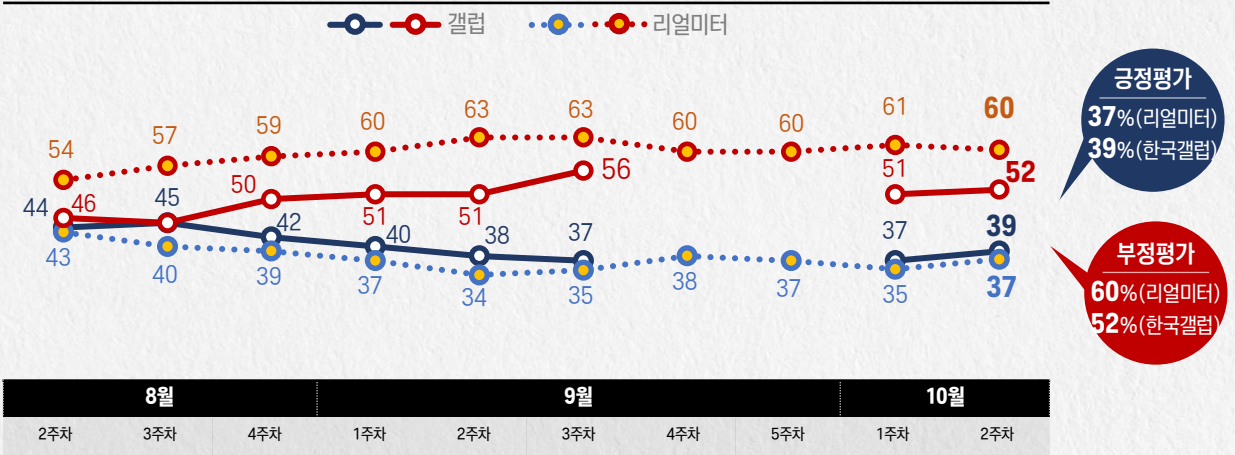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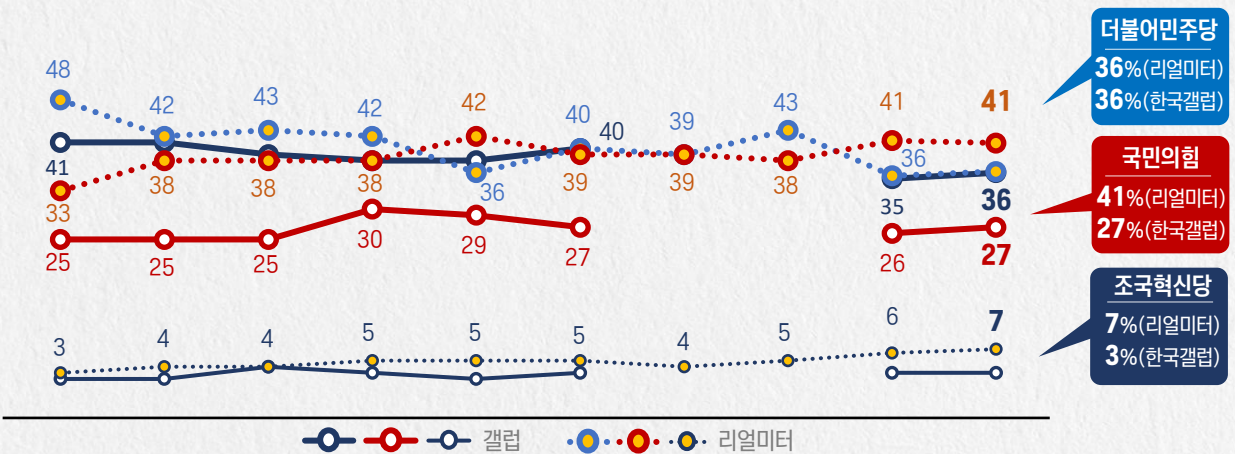


01 금주의 화두 :

- 김지용, 천신만고 끝 초대 중수청장 임명
-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02 주간 여론 동향 (2026년 8월 2주차 ~ 2026년 10월 2주차, 전화면접조사)

※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정당
지지도정치권
주요뉴스

- (10.12)李大統領, 中금속 배출 주사 투약 의혹 기업 엄중 조치 지시 / 인권위, '尹방어권 보장 권고' 대국민 사과 의결
- (10.13) IMF, 한국 올해 성장률 '3.3%'까지 올려...석 달 만에 0.7%p 다시 상향 / 한미동맹 우려에 '실용외교' 강조
- (10.14)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인사 청문회, "범죄 인정 안되면 과감히 수사 종결할 것" / 청와대 새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
- (10.15) 국회 행안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李大統領, "강력범죄에 전쟁 선포", 범정부 합동기구 구성 지시
- (10.16)李大統領, 부천 공장 화재에 "진압·인명구조 만전...소방 안전 확보" / 김지용 중수청장, 중대범죄 대응전담팀 신속 구성 지시

※ 10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 (세부)

(※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조사개요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정당지지도			
		조사기간	사례수	응답률	긍정	부정	GAP (긍정-부정)	민주	국힘	혁신	(無)
CATI (가상번호)	NBS	10/12 ~ 14	1,000	16.8%	44	49	(-5%p)	33	28	4	(28)
	갤럽	10/13 ~ 15	1,003	10.4%	39	52	(-13%p)	36	27	3	(29)
	꽃	10/16 ~ 17	1,003	9.7%	46	53	(-7%p)	41	37	5	(14)
ARS (RDD)	리얼미터	10.15~16	1,005	2.7%	37	60	(-23%p)	36	41	7	(11)
	꽃	10/16 ~ 17	1,001	2.3%	43	57	(-14%p)	44	39	8	(3)

여론
동향

- [NBS] 성장과 분배 인식: **경제성장 73%** vs. 소득분배 23%
사회 양극화 심각성 인식(심각하다 비율):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 격차 83%, 빈부 격차 80%
초과 세수 활용 방향: **나랏빛 상환 52%**, 미래 산업 투자 및 위기 대비 46%
전기요금 조정 방향: **요금 인상 최대한 늦춰야 64%** > 요금 인상해야 34%
전월세 가격 전망: **오를 것 59%**, 변화 없을 것 28%, 내릴 것 8%
DMZ 지뢰 폭발 사고 대응 방향: **북한에 단호한 대응 65%** >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32%
- [갤럽] 정계 주요 인물 호감 여부: 오세훈(호감 30%, **불호 57%**), 한동훈(호감 23%, **불호 64%**), 김민석(호감 21%, **불호 59%**), 조국(호감 20%, **불호 68%**), 정청래(호감 19%, **불호 66%**), 장동혁(호감 14%, **불호 68%**), 이준석(호감 14%, **불호 72%**)
- [리얼미터] 아시안게임 특례 즉시 폐지 찬반: 반대 38% vs. **찬성 52%**
특례 폐지 시 대체 보상 필요성: 불필요 28% vs. **필요 68%**
- [꽃]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직무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64%**, 잘 못하고 있다 30%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직무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30%, **잘 못하고 있다 65%**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찬반의견: **찬성한다 52%** vs. 반대한다 44%
초대 중수청장 내정자 김지용 평가: 적합한 인물이다 38% vs. **부적합한 인물이다 43%**
한동훈 의원 수사 필요성: **수사해야 한다 75%** vs. 수사할 필요 없다 23%

03 정세 읽기

김지용, 천신만고 끝 초대 중수청장 임명 -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임명되었다. 국회 행안위는 적격·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임명에 협조하는 분위기였고, 조국혁신당과 범여권 일부에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유지했지만 대통령은 그를 즉각 임명했다.

임명은 되었지만 그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다. 김지용 인선 논란은 한 사람에 대한 검증인 동시에, 검찰개혁을 '검찰 출신의 배제'로 볼 것인가, '검찰 권력의 제도적 분산'으로 볼 것인가를 둘러싼 충돌이었다. 인사청문 절차의 문턱은 넘었지만 검찰개혁 지지층과 국민의 신뢰라는 더 높은 문턱은 아직 남아 있다.

● 지명부터 청문회까지 이어진 논란

김 후보자는 대검 형사부장과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낸 24년 경력의 검사 출신이다. 정부는 수사 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했지만, 지명 직후부터 범여권 개혁파의 반발이 이어졌다. 비판의 핵심은 세 가지였다.

첫째, 김 후보자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성명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둘째, 2022년 검찰 보완수사권 축소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는 점이다.

셋째,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사건 등 윤석열 검찰 시기 주요 사건의 지휘선상에 있었다는 점이다.

추미애·김용민·박은정·임은정 등은 김 후보자가 검찰 기득권을 대변해온 인물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좌천돼 검찰을 떠났고, 주요 사건에서도 무리한 기소에 반대했다며 친윤 검사라는 평가를 부인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결정적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명을 유지했다. 이 대통령도 검찰개혁의 목적은 검사 출신을 모두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권력기관의 정치적 악용을 막는 데 있다고 직접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 검증은 곧 대통령의 인사권과 검찰개혁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됐다. 범여권 개혁파의 문제 제기에는 검토할 내용이 있었지만, '밀정'이나 '아이히만' 같은 과격한 표현은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을 진영 내부의 충성 경쟁으로 변질시켰다. 반대로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이 공개 비판을 인사권에 대한 도전으로만 받아들이는 모습도 개혁 지지층의 불신을 키웠다. 결국 이번 논란의 가장 큰 원인은 후보자에게 명백한 결격사유가 확인됐기 때문이라기보다, 정부가 처음부터 왜 김지용이어야 하는지, 그의 과거 전력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제2의 검찰을 막기 위해 어떤 조건을 부여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데 있다. 어쨌든 후보자 지명에서 임명에 이르는 과정에서 김지용 논란은 범여권 내부를 뒤흔들고 적잖은 상처를 남겼다.

03 정세 읽기

● 청문회에서 남은 쟁점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을 최우선 가치로 제시했다. 과거 검찰의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과감히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친윤 논란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돼 검찰을 떠났고 최근 10년 동안 윤 전 대통령과 사적으로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징계 반대 성명 역시 징계 사유가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특히 정진웅 전 부장검사 사건에서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기소에 반대했다고 설명했지만, 청문회에서는 독직폭행 적용에는 반대했으나 과실치상 기소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왔다. 정부의 재검증 설명과 후보자의 실제 입장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주요 사건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식적인 이의제기나 책임 있는 행동을 남기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는 앞으로 정치권이나 행정부가 부당한 수사를 요구할 때 김 후보자가 실제로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와 연결된다. 청문회에서 임명을 막을 정도의 새로운 법적·도덕적 결격사유가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후보자의 개혁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 그의 과거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중수청

초대 중수청장의 과거 이력에 대한 검증은 필요했다. 그러나 중수청이 이미 출범했고 상당수 인력과 간부 보직이 비어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인사 논쟁만 반복할 수는 없다. 김 후보자는 임명되었고, 이제 그가 증명해야 할 것은 자신이 친윤 검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아니다. 자신이 어느 정권에도 종속되지 않고, 중수청이 어느 조직의 기득권도 재생산하지 않는 기관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중수청을 '검찰청 시즌2'가 아닌 새로운 전문수사기관으로 안착시키는 일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미충원 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사건 이관, 전산망, 수사 매뉴얼과 기관 간 관할기준을 정비해야 한다. 특히 검찰 출신이 고위직과 핵심 수사부서를 독점하지 않도록 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당국과 민간의 회계·금융·디지털 전문가를 폭넓게 영입해야 한다. 사건 배당과 수사 확대 과정도 투명해야 한다. 사건은 원칙적으로 전산 배당하고, 재배당이나 수사팀 교체가 이뤄질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대통령실·정당·행정안전부와의 사건 관련 접촉도 남겨 외부 압력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김 청장이 청문회에서 약속한 표적수사와 먼지떨이식 수사의 근절 역시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수사기간 상한, 별건수사 금지, 장기수사 심사, 피의사실 유출 통제, 혐의가 없는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내부 규칙으로 만들어야 한다.

임은정 광주지방법중수청장에 대한 감찰도 첫 시험대다. 임 청장의 공개 발언에 공직기강상 문제가 있다면 조사할 수 있지만, 김 후보자를 비판한 데 대한 보복으로 비친다면 중수청은 출범과 동시에 과거 검찰의 내부 비판자 탄압 문화를 반복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감찰 지휘와 징계 판단에서 스스로 회피하고 독립적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03 정세 읽기

● 첫 규칙이 훨씬 중요하다

초대 중수청장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정치적 첫 수사가 아니다. 첫 인사, 첫 사건 배당, 첫 수사 확대와 첫 사건 종결을 공정하게 만드는 규칙이 더 중요하다. 김 중수청장이 개혁성을 증명하겠다고 상징적인 정치사건에 서둘러 뛰어들면 중수청은 또 다른 정치수사기관으로 출발할 수 있다. 반대로 조직 안정을 이유로 기존 검찰 출신과 관행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제2의 검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김 중수청장은 취임 직후 정치적 중립, 인권보호, 사건배당, 외부접촉, 인사 다양성에 관한 운영원칙을 서둘러 공개할 필요가 있다. 출범 100일 후에는 인력 충원, 사건 처리기간, 장기미제, 출신기관별 간부 구성, 인권침해 신고와 외부 압력 처리 결과도 국민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조직의 미래를 위한 큰 주춧돌을 놓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 복잡하고 어려운 임무이다. 결국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그것들이 축적되어야 신뢰가 쌓인다. 신뢰는 청장의 해명이나 선의가 아니라 공개된 절차와 숫자에서 만들어진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천신만고 끝에 초대 중수청장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임명까지의 어려움보다 임명 이후의 책임이 훨씬 무겁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좋은 검사였다고 증명할 필요가 없다. 어느 정권에도 종속되지 않고, 어느 조직의 기득권도 재생산하지 않는 건강한 중수청을 만들어야 한다. 일과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

김지용에게 지금부터가 훨씬 중요한 이유다.

공공정책·정치컨설팅 그룹 원지코리아컨설팅

대통령 PI를 수행한 전략컨설팅의 강자 / 가장 정확한 조사
지자체, 공공기관 정책홍보컨설팅, 빅데이터 분석, 여론조사, 선거컨설팅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29, 정우빌딩 9층(여의도동 13-25)